



##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2015.5.21 | 이정아\_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tempjunga@gmail.com

노동자가 소비자임을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 별개의 경제적 행위로 명명되는 노동과 소비는 분리불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정체성만을 의식하고 소비자로서 정체성은 망각하거나, 소비자로 호명된 경제 주체들의 노동자성은 슬그머니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소비자임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오리너구리의 박제가 1798년 대영박물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다. 네발짐승의 몸통에 오리 부리를 접착한 듯 보였지만, 위조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리 주둥이, 물갈퀴, 비버 꼬리를 가진 이 두더지 같은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 식물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조지 쇼가 곧바로 분류를 시도했으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에 살며 알을 낳고 젖이 나오지만 젖꼭지가 없는 오리너구리는 조류인가, 양서류인가, 포유류인가? 오리너구리의 분류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가 찍힌 때는 1884년으로, 발견이 보고되고 무려 80여 년이 흐른 후였다. 결론은 난생 포유류 혹은 단공(單孔)류. 동물의 분류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해치지 않는 ‘협상의 결과’였다.<sup>1)</sup> 분류는 개념화의 방식이므로 ‘이해하기 위해’ 분류에 대한 논란을 이어왔다는 설명은 옳다. 특성상 온전히 조류나 양서류, 포유류로 분류될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을 위한 별도의 범주를 포유류 범주 아래 마련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80년 이상 걸린 오리너구리 이야기에서, 우리의 지각이 생각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배운다.

오리너구리는 오리와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리너구리라고 불린다. 즉, 오리너구리는 ‘오리’ 너구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오리와 관계가 없다. 아마도 오리의 특징을 지녔으나 오리만큼 친숙하지 않은 이 동물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오리너구리의 입장에서 그 결과는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오리너구리라는 명명이, 오리를 알지만 오리너구리를 모르는 사람은 남기고 오리너구리를 알지만 오리를 모르는 사람은 제

1) 에코, 움베르토(2006), 『칸트와 오리너구리』, 박여성 옮김, 주식회사 열린책들.



거하는 신비한 힘을 가져다준 것이다. 우연히 오리너구리에 대해 듣게 된 사람이 백과사전에서 오리너구리를 찾는다면 주둥이가 오리와 비슷해서 오리너구리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오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둥이가 오리와 비슷하다는 묘사를 ‘이해하기 위해’ 오리 항목을 한 번 더 뒤적여야만 한다. 하지만 단지 오리가 궁금해서 백과사전을 들춰본 사람이 그로 인해 오리너구리를 알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같이 명명의 힘은 크다.

노동자가 소비자임을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 똥단지같은 오리너구리 타령을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별개의 경제적 행위로 명명되는 노동과 소비는 분리불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정체성만을 의식하고 소비자로서 정체성은 망각하거나, 소비자로 호명된 경제 주체들의 노동자성은 슬그머니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오리를 알면 오리너구리도 아는 셈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소비자임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림 1. 웹 부부의 교섭사슬



약 100년 전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노동사가였던 웹 부부는 임금을 비롯한 모든 일련의 가격이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며 이를 ‘교섭사슬(the chain of bargainings)’ 이라고 불렀다.<sup>2)</sup> 그림 1은 웹 부부의 설명에 따라 노동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교섭사슬의 각 국면에서 교섭의 결과로 가격이 결정됨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교섭당사자들 간 상대적 힘의 차이는 가격 흥정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러한 힘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은 자유(freedom)이다.

사슬의 왼쪽은 공급측, 오른쪽은 수요측이다. 생산자는 노동자와 교섭국면에서 수요측이지만 도매상과 교섭국면에서는 공급측이다. 공급이 넘칠 때 수요측은 교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힘은 커진다.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는 수요를 하지 않을 자유에 의해 가장 큰 힘을 잠재하게 되지만, 최종 공급자인 노동자의 자유도는 (특히 실업자가 존재할 때) 매우 낮다. 따라서 산업시스템 규제가 부재한 경우 공급의 최종 국면에 있는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산업이 나타나 유지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산업을 웹 부부는 기생산업(parasitic trades)이라고 불렀다.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이슈가 된 소위 ‘갑을관계’ 를 웹 부부의 교섭사슬을 수정해서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2) Webb, Sidney and Beatrice Webb(1897[2003]), *Industrial Democracy*, Palgrave Macmillan.



그림 2. 수정된 교섭사슬



그림 2의 ‘갑을관계’ 사슬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림은 훨씬 복잡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단순하게 묘사한 교섭사슬의 장점은 교섭의 가능성이 양방향으로 펼쳐져 있음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교섭사슬의 가운데에 있는 영세 사업자가 이윤 몫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 몫을 줄일 수도 있지만 기업 납품 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몫은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낮게 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비싼 값을 받을수록 커진다.

교섭전략이 성공하면 교섭의 결과는 교섭사슬 양쪽으로 파생된다. 최종 공급자인 노동자는 일련의 교섭에 의한 파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저임금 위험에서 노동자의 방파제가 되는 산업시스템 규제로 웹 부부는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제 등을 언급했다. 기업이 개인이 아닌 기업 조직이 강력한 힘을 갖듯이, 노동자 개인은 약해도 노동자 집단은 강할 수 있다. 이는 사슬의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 집단은 강력한 힘을 갖지만 소비자 개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를 원자화된 개인으로 호명하는 것은 유효한 교섭전략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집단이 교섭에서 행사하는 힘은, 과학 용어를 빌려오자면, 일종의 ‘떠오름(emergence)’<sup>3)</sup>이다. 노동자나 소비자 개인에게 내재한 듯이 보이지 않는 힘은 집단으로 구성되었을 때에만 홀연히 ‘떠오른다.’ 집단 구성의 방지는 효과적인 떠오름 제거 전략이 된다. 위 교섭사슬에서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가장 큰 힘이 잠재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없다면, ‘호갱’이라는 자조적 신조어에 더 공감하고 있다면, 이는 떠오름의 방지 전략이 현실에서 성공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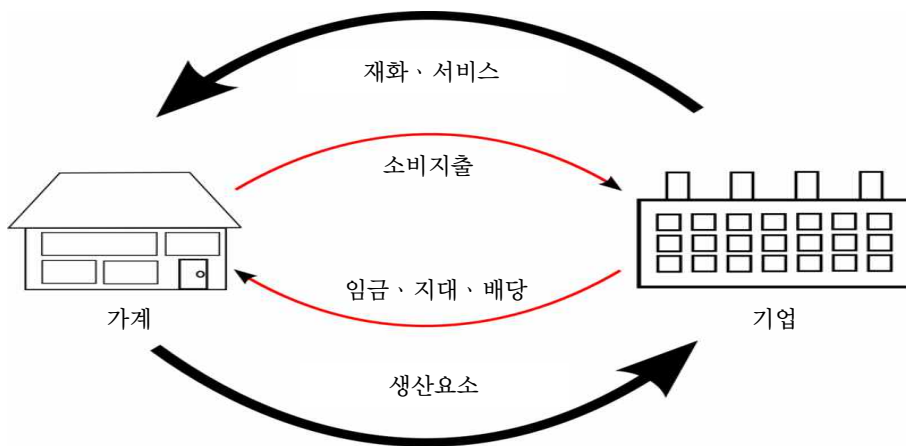
떠오름 제거 전략의 성공은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경제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배우게 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경제 순환도(circular-flow diagram)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하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의 되풀이되는 과정 혹은 구조를 모형화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다. 가계는 (주로는 노동인)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임금 등의 대가를 받는다. 기업은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가계에 판매한다. 그러므로 화폐와 상품은 가계와 기업 사이에서 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떠오름은 미시적 부분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시적 성질을 지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벌의 집단이 벌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개별 벌 행동의 관찰을 통해 이 능력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분의 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전체의 성질을 떠오름이라고 한다.



자, 앞서 살펴본 교섭사슬을 떠올려보자. 교섭사슬의 양 극단인 노동자와 소비자는 경제 순환 모형의 ‘가계’에, 교섭사슬 가운데는 모두 ‘기업’에 해당한다. 직선으로 표현된 교섭사슬을 동글게 말아서 노동자와 소비자를 겹쳐놓으면 경제 순환도가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교섭사슬을 동글게 말아도 기업은 생산요소의 수요자인 동시에 상품의 공급자라는 정체성 변화를 겪지 않는다. 반면 최종 공급자인 노동자와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상품을 수요하는 ‘가계’라는 다른 이름으로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림 3. 경제 순환도



노동자 집단 또는 소비자 집단은 공통의 행위에 의해 매개된다. 그러나 가계 집단이란 정체성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 기업 역시 생산요소를 구매하고 상품을 판매하지만 기업 활동의 본질은 생산에 있기에 조직되고 조정된다. 가계 활동의 본질은 무엇일까? 2인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 형태의 절반을 넘고, 1인 가구도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인 개인들이 ‘가계’로 호명되어 집단을 형성하지 않을 때 각 교섭국면에서 가질 수 있었던 힘은 떠오르지 않는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길이 소비자로서 정체성을 선택하는 길에 비하면 생각하기 쉬운 듯하다. 노동자 집단의 떠오름으로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거나 소비자 집단의 떠오름으로 상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모두 실패하면, ‘가계’는 궁핍해진다.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떠오름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갱’이라는 신조어, 저임금화, 빈곤과 불평등은 현재 한국 사회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이다. 단공류에 속하는 독특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둥이 모양 때문에 오리너구리라고 불리는 동물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는 모양새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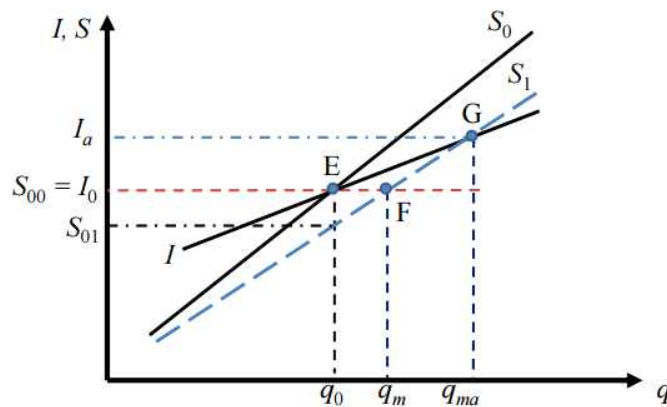




가계의 빈곤은 기업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노동자인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 경제 순환의 활력이 감소한다. 최근 걱정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이처럼 활력이 감소한 경제 순환과 관계가 깊다. 임금주도성장 혹은 소득 주도성장이 주목받고 있는 사정도 경제 순환의 활력감소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주도성장론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 소득이 높아졌을 때 소비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늘리면 경제 순환의 활력이 강화되는 경제 구조를 가리킨다. 기업 이윤의 재투자 성향에 의해 성장하는 경제 구조 역시 존재하지만(이윤주도성장, 중국이 여기에 속한다)<sup>4)</sup>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임금 주도성장형에 속한다. 폴란드의 경제학자 칼레츠키(Michał Kalecki)의 성장 모형에 기반하는 임금주도성장론을 잠시 살펴보자.

그림 4. 임금주도성장 모형



출처: Lavoie, Marc and Engelbert Stockhammer(2012),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LO: p.9

그림 4의 세로 축은 투자와 저축, 가로 축은 산출량을 의미한다. S로 표현된 저축곡선과 I로 표현된 투자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산출량 q가 결정되는데, 현재의 균형 산출량이 S<sub>0</sub>와 I 곡선이 만나는 점 E에서 결정된 q<sub>0</sub>라고 하자. 만약 임금 몫이 늘고 그만큼 소비가 더 늘어서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감소한 결과<sup>5)</sup> 저축곡선이 S<sub>1</sub>으로 바뀌면 투자곡선 I와 만나는 균형점은 G로 이동하고 균형 산출량은 q<sub>ma</sub>로 커진다. 즉, 경제가

4) 다음을 참조. Onaran, Özlem and Giorgos Galanis(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ILO.

5) 월급여 210만원을 받으며 30만원을 저축하던 사람의 임금이 250만원으로 높아졌는데 저축액은 35만원으로 늘었다고 하자. 임금 인상 전의 저축률은 14.3%이었는데 인상 후에는 14%가 되었으므로 저축률은 감소했다. 이와 같이 늘어난 임금을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사용하는 경향은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강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몫을 늘릴수록 소비성향이 강해진다. 이는 <그림 4>에서 저축곡선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한다.<sup>6)</sup>

이 글은 임금주도성장론의 소개를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sup>7)</sup> 그보다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곧 소비자의 소비 원천이며 경제의 활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비자가 소비자 집단으로 구성되지 않는 탓에 가격이 높게 상품 가격 교섭에서 힘을 갖지 못하고 높은 이윤율-높은 가격으로 유지되더라도 임금이 충분히 높으면 경제 순환의 활력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낮을 때 장기적으로 경제 순환의 활력 감소를 막기 어렵다. 바로 '떠오름' 이 절실한 때이다.▲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5월 2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6) 그러나 이윤 몫의 증대로 투자곡선이 변화하는 정도가 더 커서 이윤 몫을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 유리한 구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주도성장이 어느 경우에도 만병통치약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이상현(2014), 「소득주도성장」, 『사회경제평론』, 43호: 67-99.